

News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안간힘... 10년 분할상환까지 등장

연합뉴스

은행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 수월하게 갚도록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 파격적 조건의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 KB,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 시작...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미 9월 금융지원 종료 가정하고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

우리금융지주, 동시다발 악재에 출렁

매일경제

우리금융지주,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10%가까이 급락... 19일에는 MSCI가 우리금융지주의 한국 지수 내 비중 상향 조정 계획 철회 소식에 외국인 중심 대거 순매도 18일에는 예보 불확실 이슈가 영향...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악재로 수급 악화되며 주가 불확실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신한금융, 마지막 퍼즐 완성했지만... 손보사 앞날은 '가시밭길'

뉴스토마토

신한지주, 카디프손보 인수 추진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 완성 앞뒤... 다만 완전 디지털화를 통한 손보사 성공 사례 없고, 카카오페이손보 출범 앞두고 쉽지 않아... 현재는 금융당국 인가 진행 중... 내달 정도 마무리될 예정... 다만 카디프손보의 총자산규모가 1,272억원으로 가장 작아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윤종규·조용병·함영주, 디지털 SI 펀드로 합종연횡 가속

한국금융신문

주요 금융지주들,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박차... KB, 신한, 하나금융지주, 그룹사 공동 출자를 통해 조성한 디지털 SI펀드 운영 펀드 규모는 최근 VC 시장의 건별 투자액 고려해 3,000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어... 우리금융도 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추진 중

손보사 실손보험 리스크 3조5천억... 의료쇼핑 해법 '미궁'

데일리안

국내 손보사들, 추산된 실손의료비 보장 관련 보험 가격 위험액은 작년 말 기준 총 3조 4,212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0.6% 증가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불거질 손실 그만큼 확대... 보험사별로는 DB손보가 6,253억원으로 최대... 아직 과잉진료 차단을 위한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난관

생보사,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금리경쟁 '치열'... 새 회계기준 앞두고 부메랑되나

핀포인트뉴스

금리 상승으로 방카슈랑스 채널 단기 저축성 상품 중심으로 경쟁 치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 흥국생명 2.85%, 교보생명 2.75% 등 확정금리 높은 이율에 속해... 다만 IFRS17 도입 앞두고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 제기... 고금리 판매 상품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 많은데 이를 모두 부채로 계산... 회사들이 자제하는 이유

실탄 확보한 대형증권사... 미래에셋·한투·NH·키움 '재무건전성' 개선

CEO스코어데일리

자기자본 상위 10개사 중 미래에셋증권의 NCR이 2,198.2%로 가장 높아... 전년동기대비 30.2%p 증가한 수준... 주요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 반면 삼성증권, 신한투는 각각 1,155%, 1,219.8%로 400%p 넘게 급감... 대신증권은 377%로 가장 낮아... 향후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빛투, 6거래일째 21조원대 공방전... 테마주에 '집중'

이데일리

19일 기준 신용융자잔고, 전거래일 대비 367억원 증가한 21조 5,537억원으로 집계... 시장별로는 코스피 11조 5,891억원, 코스닥 9조 9,646억원 시가총액 대비 융자비율이 상위인 종목들을 보면 테마성이 짙어... 코스피의 경우 씨니전자의 잔고비율이 12.69%로 가장 높아... 다만 신용융자 이자율은 계속 오름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